

빛가람 호수공원,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힐링공간 조성키로 나주시, 에너지밸리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서 제시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이 혁신도시 랜드마크 및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진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시청 이화실에서 ‘빛가람에너지밸리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빛가람 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호수공원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중심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보고회는 또 빛가람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

성에 도움이 될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빛가람호수공원의 수질 및 수위·조명·주변 경관 등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가 하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공간별로 조성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빛가람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의 하나로 호수공원 조성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이화실에서 빛가람에너지밸리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빛가람호수공원 전경. 나주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역 일대 쾌적하게... 대대적 환경개선

6만5천㎡ 근린공원 만들고 250면 규모 주차장 조성 교통사고 예방 회전교차로도

나주시가 나주역 일대 환경 개선에 나선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주역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 교차로도 만든다.

나주시는 122억원을 들여 나주역 앞 6만5000㎡ 규모의 암벽 절개지를 없애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나주역 앞 부지에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뿐 아니라 호남고속철도와 SRT 나주역 정차 등으로 이

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나주시는 호남고속철인 KTX와 수서발 고속철 SRT의 나주역 정차로 평일에만 2500여명, 주말과 휴일의 경우 3000여명이 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좁은 기존 주차 공간(300면) 문제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했고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나주역 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인근 교통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이같은 사업들을 포함, 내년 상반기부터



나주시는 나주역 일대에 근린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나섰다.

본격 진행키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나주역 근린

공원 조성사업에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따뜻한 겨울 나세요” 사랑의 땀감 나눔 나주시, 독거노인 등 27가구에 장작 배달

“장작으로 추운 겨울을 이기세요.” 나주시가 사랑의 땀감 나누기 운동에 나섰다. 난방 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들의 겨울나기를 돕자는 취지다.

나주시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80t 분량의 장작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27가구에 전달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임산물을 장작으로 가공, 사회 저소득층에 지원해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어려움 형편의 42가구를 대상으로 50t 분량의



장작을 배달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공공도서관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 최우수상

나주공공도서관이 올해 청소년자원봉사 우수 터전으로 선정됐다. 나주공공도서관은 최근 열린 ‘2017년 청소년자원봉사 우수 터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원봉사 우수 터전은 여성가족부와 전남도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년 전남지역 200여 기관 중 10개 기관이 선정됐

다. 나주공공도서관은 매 주말과 방학기간, 청소년이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소감을 공유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수상을 계기로 올바른 인격형성과 즐겁고 보람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26일까지 나주시

6개 종목 선수 1000여명 참가

올 한해 씨름판을 총결산하는 2017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가 26일까지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는 천하장사전, 여자천하장사전, 남자체급별장사전, 여자체급별장사전, 대학장사전, 세계특별장사전 등 6개 종목에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회 기간 모든 경기 관람은 무료다. 대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인기 가수 초청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푸짐한 경

품을 준다. 나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숙박·요식업 특수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2000년의 역사·문화 관광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인 나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실업팀인 나주호빌스 여자씨름단을 창단하는 등 민속 씨름 부흥과 저변확대, 유소년 선수층 육성 등에 관심을 쏟아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가을 힐링 여행'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켄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켄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입니다. 문화재 명장이 공정마다 혼을 담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지어져 기품 있는 한옥의 멋이 느껴집니다. 머뭇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by 켄싱턴 | 남원시